4·11 총선 돋보기

〈10〉이색 플래카드·명함 홍보 백태

저마다 '큰 인물'… 프로야구 일정표도 등장

정권교체·복지실현 등 정치신념 문구 눈길

"지역발전 보증수표" "유일 여성후보" 강조

오는 11일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의 이색 명함 및 플래카드 등에 적힌 다양한 홍보 문구가 눈길을 끌고 있다.

각 후보들은 플래카드 등 각종 홍보물에 자신들의 정치 공약과 정치 비전을 압축해 반영하고 상대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기발한 '구호'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재선이나 3선을 노리는 현역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정권교체, 보편적 복지 등 자신들의 정치신념이 담긴 플래카드 문구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강기정(북구 갑) 후보는 '정권교체 원하시면 민주당 OK, 강기정 OK'를, 김동철(광산 갑) 후보는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이용섭(광산 을) 후보는 '광주에도 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장병완(광주 남구) 후보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경력을 내세워 '남구발전 보증수표'라는 문구로, 지역 발전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후보로 확정된 정치신인들은 자신의 정치색깔을 강조했다. 임내현(북구 을) 후보는 '큰 인물 새 정치 희망 북구'라는 문구로 고위직 관료 출신과 정치 신임임을 부각시켰다. 박혜자(서구 갑) 후보는 '광주·전남 유일의 민주통합당 여성후보, 복지행정 전문가'라는 내용으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플래카드도 절박한 현실과 함께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조영택(서구 갑) 후보는 '인물은 역시 조영택'으로 인물론을 강조했으며, 송갑석(서구 갑) 후보는 '여러분의 진짜후보'라는 문구로 '경선 잡음' 문제를 꼬집었다. 김경진(북구 갑) 후보는 '바꿉시다. 선택 김경진'을 문구로 사용해 3선에 도전하는 강기정 후보를 견제했다. 김재균(북구 을) 후보는 '아깝다 김재균, 한번 더 김재균'으로 경선 탈락에 대한 안타까움을 유권자에게 어필했다.

새누리당 이정현(서구 을) 후보는 일당독점을 깨 광주 정치발전을 이루자는 뜻과 자신의 지역예산 확보 성과를 함축한 '광주발전 정치발전 호남예산 지킴이'라는 메시지를 사용해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무소속 정용화(서구 갑) 후보는 자신의 기호인 8번을 강조한 '경제도 정치도 8짝 뛰어보자'는 문구를 사용했다.

통합진보당은 정권교체에 대한 염원을 담으면서도 민주통합당과의 차별성을 시도하고 있다. 야권연대 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윤(서구 을)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가 이겨야 합니다'로 야권연대 후보를 강조했고, 장원섭(광산 갑) 후보는 '야권연대로 정권교체를, 야권연대 협상대표를 국회로'라는 문구를 사용해 자신의 경력도 표현했다. 이민원(남구) 후보는 '돈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복지'로 복지 공약을 어필했다. 윤민호(북구 을) 후보는 '상전을 모시겠습니까, 일꾼을 뽑겠습니다'로 민주통합당 후보를 견제했고, 이채언(북구 갑) 후보는 '실천하는 경제전문가'로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경력을 부각시켰다.

무소속 후보가 난립한 광주 동구도 인물과 심경을 내비친 문구가 주를 이뤘다. 무소속 박주선 후보는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말로 '투신자살 사건' 이후 최근의 심정을 대신했다. 양형일 후보는 '할 일 많은 동구 검증된 일꾼'으로 전직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 중량감을 제시하고 있고, 이병훈 후보는 '바꿔야 산다'로 전·현직 의원을 지낸 두 후보를 견제했다. 시민 후보로 나선 무소속 김강열 후보는 '민주당 탈당후보 NO, 범 민주시민후보 YES'라는 내용으로 민주통합당 탈당 후보들을 한꺼번에 견제했다.

한편, 이병훈 후보는 '2012년 4월 프로야구 일정표'를 선거 명함에 넣어 유권자들의 시선을 잡고 있다. 최근 은퇴를 선언한 기아 타이거즈 이종범 선수의 명예를 기리는 문구도 담았다. 이종범 선수의 등번호가 7번인데다 이 후보가 기호 7번을 배정받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야구는 번호 7번 이종범', '선거는 기호 7번 이병훈'이라는 문구도 넣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대화 인천시 지원유세에 나선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2일 오후 인천 서구청 옆 마실거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TV토론 참석여부 싸고 '티격태격'

불참 후보 사퇴 촉구에 일부선 토론 기회조차 안준다 불만도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 능력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TV 토론회가 후보간 토론회 참석 여부를 놓고 시끄럽다.

무소속 김재균, 통합진보당 윤민호, 진보신당 안영돈 광주 북구 을 국회의원 후보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TV토론회에 불참한 민주통합당 임내현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임 후보가 최근 광주 MBC와 CMB가 주최한 방송토론회를 잇달아 거부했다"면서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자,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덕목인 국민과의 소통을 회피하는 반 민주주의 처사'라며 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과 임 후보의 오만함으로 인해 실종된 정책 토론회의 정상적 진행을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 측은 "경선에서 3차례의 방송 후보토론회를 통해 자질과 정책을 검증을 받았고, 민주당 공심위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국민경선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천을 받았다"며 "야권연대와 정권교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정당 후보들과 대립하고, 상호 비방하는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이라며 "오는 5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는 반드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임 후보 측의 토론회 잇따른 불참은 사실상 민주통합당 후보와 비 민주 후보 간 '1대3'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토론회가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후보는 아예 토론회 기회조차 주지 않는데 대한 불만도 있다. 현재 토론회 초청은 5인 이상 의석수 정당이나, 무소속의 경우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후보들은 토론회 참석이 불가능하다.

뒤늦게 광주 동구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뛰어든 김강열 후보 측은 "선거에 뛰어든 지 일주일 만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선관위의 규정이 약자의 기회를 뺏는 강자를 위한 규정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론했다. 또 동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주선 후보 측은 최근 모 방송사 토론회에 불참해 비난이 일자 "방송사 측의 실수로 출연을 못하게 됐는데, 마치 일부러 피한 것처럼 비쳐져 유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구 무소속 김강열·통합진보 김관희 후보

단일화 무산 공방 가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구 선거구의 무소속 김강열 후보와 통합진보당의 김관희 후보 측 사이에 단일화 무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구 비상대책회(이하 비대위)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시민후보와 통합진보당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단일화를 제안했으나 통합진보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식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김강열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민주시민후보와 통합진보당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통합진보당의 거부 통보로 끝내 무산됐다"며 "두 후보 간 단일화 결렬은 선거운동원 사망사고로 촉발된 광주 동구 사태에 대해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합쳐 대응하기를 바랐던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은 "후보등록 단계에서 비공식 접촉을 통해 조건 없는 후보사퇴를 요구해 당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며 "단일화에는 절차와 방식이 있는 것인데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시기적으로도 단일화 논의가 너무 늦은 감이 있었다"며 "상대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공당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SNS 불법선거운동 첫 적발

서구선관위, 신문기사 무단배포 등 4명 고발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신문기사를 배부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등 4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SNS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후보의 지지자인 A씨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타보고 싶었던 차, 스웨덴의 볼보를 타시고. 아들은 20대의 나이에 2억원을 호가하는 벤츠를 사주시고. 존경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인 B씨와 C씨 등 2명은 지난달 21일 모 학교 공동체의 날 행사에 참석해 특정 후보자의 명함과 특정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혐의다. 해당 후보자의 고교 선배인 D씨도 지난달 28일 광주시내 한 식당에서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복사해 손님 20여 명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눈 앞에 두고 선거구민의 표심을 왜곡할 수 있는 비방·흑색선전이 우려된다"며 "3대 중점 단속 선거범죄의 하나인 비방 흑색선전에 대해 특별기동조사팀 등을 투입,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흥·강진·영암 불법선거 공방

장흥·강진·영암선거구 무소속 유인학 후보가 2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통합당 황주홍 후보가 지난해 강진군수 재직시절 업무추진비로 찹쌀과 토하젓 등을 구입해 장흥과 서울 등지로 선물을 보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출마예정자가 선거구 지역민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사람에게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강진군수와 강진군 명의로 지역구민과 재경 향우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수사 개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황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다. 연륜과 경륜에 걸맞은 평상심을 회복하시길 정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거짓된 제보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는 일을 두고 느닷없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허위 제보자가 어느 측이었는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자인하는 셈이다"면서 "명절 때 선물을 돌린 적도 없으며 택배회사 배송지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반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